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단지고 단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에는 경남중고교

# 庚南中窓會報

발행·편집인: 정 행 권  
 발행 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 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 “용마가족 여러분은 동창회의 희망이요 자존심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의 '04용마의 밤' 축제가 지난 12월10일 저녁 부산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산을 비롯한 서울 울산 마산 창원 대구 등 전국에서 1,2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마음 저리는 감동을 연출했다(사진).  
 행사장은 오후 6시부터 제 1~48회 동문들이 삼삼오오 물려 들기 시작, 삼시간에 장대를 가득 메웠고 경쾌한 선율의 음악 속에 추억의 영상 파노라마가 겹쳐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객석을 사로잡았다. 노래와 장기자랑 사이사이에 추첨된 행운상은 40여명의 동문에겐 안겨졌다. 이 가운데 대상(김치냉장고)은 안종렬(8회)·특상(홈시어터)은 최경태(8회)·금상(DVD)은 송정열(42회)·은상(DVD)은 김원형(11회)·동상(오디오)은 박재창 동문(26회)이 각각 수상했다.

### 한필용(37회) 색소폰 연주 안종렬(8회) 행운대상 차지

한편 송두호 고문(3회)은 피날레를 장식하는 삼세삼창에 앞서 “국내의 우리 용마가족들은 동창회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주역”이라고 역설한 후 “대한민국 만세! 모교 만세! 동창회 만세!”를 선창했고 만장한 동문들이 일제히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날 축제는 오후 9시20분경 막을 내렸고 동문들은 모두 본부가 마련한 기념품을 안고 헤어졌다.

한편 축하 화환은 ▷부산시내 중고재경동창회 협의회(회장 김경희 재경고문) ▷경남상고동창회(회장 이승우) ▷동아고교 (회장 김길출·18회-한국주철 대표이사) ▷부산상고 (회장 신상우) ▷부산중고 (회장 김진재) 등에서 보내와 행사를 빛내주었다.

서들의 열연으로 막을 연 '열광한마당'은 MBC 주부가요대회 입상자 6명으로 구성된 '소리바다'의 '아름다운 강산' 등 특별 공연이 맨 먼저 선을 보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 동문 보컬팀 스타퍼시 청악가 이상석(22회) 열창

이어 동문 보컬팀 '스타퍼시(9인조·35회 이종기 리더)'의 '나 어떡해' 등,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성악가(바리톤) 이상석 동문(22회)이 딸의 피아노 반주에 따라 '사우'와 러시아어로 '카추샤'를, 한필용 동문(37회)의 '밤안개' 등 색소폰 독주, 스타퍼시와 한 동문의 색소폰 협연 등

## '04용마의 밤' 감동충천

전국서 1,200여명 참석... 축제 출범시킨 송두호(3회)·이희문 동문(6회) 공로패

정행권 본부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이 주재한 축제 제1부 기념식은 이날 오후 6시50분 개회선언(남진현 부회장·19회)으로 막을 열어 '용마들이여, 영광을 위해 다시 뛰자!'라는 구호 등이 아로새겨지는 현란한 레이저쇼에 이어 교가제창(임정훈·44회 회장) 내빈소개 유공동문표창 회장개회사 격려사(박동열 고문·8회) 축사(신준호 재경고문·14회) 국회의원 동문 대표 축사(김병호·15회) 축하(김근준 고문 제의·1회) 축하케이크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사회: 김형석 사무국장·16회).

러분의 열정으로 '용마의 밤'이 20돌의 전통을 세우게 됐다"며 "다시 역량을 결집해 다함께 힘차게 걸어 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내빈소개에서는 정행권 본부 회장을 비롯, 김근준(1회) 송두호(3회) 정소영(6회) 조대제(7회) 박동열(8회) 본부고문과 박종근 한동대 최한성(이상 9회) 자문위원, 김경희(9회) 신준호(14회) 재경고문, 이희문(6회) 전 경남고 교장과 김철곤(16회) 경남중 교장, 국회의원인 김병호(15회) 권철현(19회) 김무성(24회) 서병수(25회) 엄호성(28회) 동문, 문정수(12회) 전 부산시장과 오거돈(21회)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단상에서 인사, 박수를 받았다.

### '열광 위해 다시 뛰자' 레이저 쇼 분위기 고조

정행권 회장은 유공동문 표창에서 20주년맞이 '용마의 밤' 축제를 1984년 출범시킨 송두호 당시 회장과 이희문 사무국장에게 공로패와 기념품을 수여했다. 정 회장은 이어 개회사를 통해 "우리 동창회의 주인공이요 자존심이며 희망인 선·후배 동문 여

위원장, 마산-창원회의 강상대(22회) 부회장·김현기(21회) 차기 사무국장·김수용(24) 사무국장, 하영제(27회) 남해군수 등이 객석에서 인사,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제3부 '열광한마당'은 제2부 만찬이 거의 끝난 오후 8시10분 전문 MC 김경진 동문(44회·편커뮤덕션)의 재담 넘치는 사회로 진행됐다.

다이나믹한 시그널 뮤직과 휘황찬란한 조명 속에서 4인조 밴

## 본부 고문단회의·이사회 개최 '용마의 밤' 운영 자문·예산안 등 승인

본부동창회 올해 제3차 이사회가 지난 11월23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정행권 회장 주재로 열려 '2004 용마의 밤' 축제 예산안과 1984년 축제를 출범시킨 송두호 당시 회장과 이희문 사무국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등 주요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행사 프로그램 편성 위원으로 이대규(9회·본부이사)·박청홍(14회·경총회장)·이만수(PSB 이사)·정인식(정인갤러리 대표·이상 28회)·김재철(30회·부산MBC 보도부장)·김형수(32회·동기회 총무)·김

경진 동문(44회·편커뮤덕션)을 선정했다.

### 장학회 임원선임 등 논의

한편 정행권 본부회장은 앞서 같은 달 15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올해 두 번째 고문단회의를 주재, '04용마의 밤' 계획안·임기가 끝나는 용마장학회 이사장·이사 선임 문제 등을 설명했다.

## 제 21회 동기회 임원명단

<p>◎ 본부동창회 부회장 최민석 최재권</p> <p>◎ 본부동창회 이 사 강수경 송원경 오거돈 전기환 정익주</p> <p>◎ 고 문 (역대회장) 박상기 이문수 이재홍 최수명 안채식 강창수 이재화 이영훈 김병수 장 호 이승현 성윤수 임경범 정영천 강수경 전기환</p> <p>◎ 지역고문 최민석(마산창원) 박일송(울산)</p>	<p>◎ 회 장 오거돈</p> <p>◎ 수석부회장 강수경</p> <p>◎ 부 회 장 서덕수 이재화</p> <p>◎ 협의부회장 강창수 김한규 송재영 안채식 윤승근 이강남 이재호 전우성 정영천 최수명</p> <p>◎ 이 사 강민우 강순석 강영도 공기화 권영순 권용호 권재진 김성환 김기현 김동우 김부근 김길서 김원달 김익수 김유건 김준모</p>	<p>김지호 김현일 김황세 김창민 민한식 박명문 박병진 박현두 박순양 박자민 박재선 박찬영 배영일 배 일 변성인 박성렬 신금봉 성정근 손원조 송재식 여환부 오성모 오익희 옥영철 우중득 육희원 윤상철 이세형 이규규 이일상 이재택 이종하 이정규 이 일 희 전광수 정의주 정길영 정동일 조병규 조학래 조호제 정대원 진영춘 최금구 최낙환 최재봉 최현두 한수민 한인환 허영도 황동규 황영실</p>	<p>◎ 총 무 조현영 권오균</p> <p>◎ 서울동기회 회장 박상기 총무 홍순길</p> <p>◎ 마창동기회 회장 강경구 총무 김현기</p> <p>◎ 울산동기회 회장 박중남 총무 신창범</p> <p>◎ 이일산우회 회장 정영천(등산)</p> <p>◎ 기우회 회장 전기환(바둑)</p> <p>◎ 조우회 회장 배 일(뉴스)</p> <p>◎ 당구회 회장 정효명(당구)</p> <p>◎ 신우회 회장 한인환(기독교)</p> <p>◎ 천수회 회장 송재영(불교)</p> <p>◎ 반석회 회장 강수경(천주교)</p>
---	--	--	---

◎ 감 사 임경범 변창섭

승년사

박흥조

제22회·본부 부회장·울산지역 회장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의 끝자락에 서서 동창회 안팎을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옥죄는 것은, '동창회 활성화와 용마가족의 유대 강화를 위해 좀 더 앞장설 것을...' 하는 자책감이다.

지난 12월9일 울산지역동창회는 '용마의 밤'을 겸한 정기총회를 통해 나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 중책을 맡겼고 나는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혼신의 노력과 함께 봉사·헌신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되돌아보면, 자랑스런 경남중고동창회와의 인연은 예사롭지 않다. 대학시절 덕형회 총무를 비롯해 대구지역 총무 10여년, 울산 동기회장 10년, 울산지역 사무국장 2년과 부회장 8년, 본부동창회 부회장 1년 등 줄잡아 35여년을 동창회와 용마가족들 사이에서 어울려 왔으니 '숙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만난 동문들은 한결같이 좋았고 동문들 또한 나를 좋아했다. 이 같은 우정이 나를 우리 동창회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쏟게 했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를 두고 '정(情)의 사회'라고 부른다. 그리고 동창관계란, 배울 때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지만 일단 사회에 나오면 형제 이상의 끈끈한 정으로 밀고 끌어주는 등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허물 없는 관계이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바쁜 공식 중

“낮추고 사랑하고 어울리자”

에도 동창들의 전화는 직접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우리 동문들도 이제는 스스로 되돌아볼 줄 아는 마음, 나와 나를 되돌아보는, 앞서 나간 내가 뒤쳐진 누군가를 향해 되돌아서서, 밝은 빛 아래 선 내가 그늘 속의 내게 손을 내미는 마음... 등등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용마가족이 지향하는 진정한 동창애의 길이요, 동창회 활성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용마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창회 행사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얼굴을 익히고 상부상조의 마음이 생기며 이를 통한 화목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 용마가족들은 먼저 편안하고 허물 없는 동문들과 우정을 깊이 심는 데 노력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쏟는 노력의 10분의 1 정도라도 베풀면 동문 간에 돈독한 유대를 가꿀 수 있지 않을까?

동창회는 동문들의 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 안토니기든스는 '책임 없이 권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기업이 사랑을 받듯 이제 동창회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봉사하는 명문다운 동창회, 사랑받는 동창회가 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21세기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넘치고 모자라는 것을 나누고 보완해가면서 사랑과 정의의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펠로우십도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는 그 동안 명문출신이란 긍지보다도 남들에게 자만심을 내보인 건 아닌지 반성해보자. 따라서 '참여하는 동창회, 재미있는 동창회, 보람 있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참여하자! 희망의 새해에는 용마가족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한다.

본부 용마장학회 새 이사장 안강태 (11회) 선임  
내년예산 7,900만원 확정

본부동창회 용마장학회 차기 이사장에 안강태 본부 수석부회장(11회·장학회 이사·대선조선 대표이사)이 선임됐다. 또 2005년 예산규모(모교 학업장학·체육장학사업 등)는 7,900만 6,143원으로 확정됐다.

안강태 새 이사장은 내년 1월 19일 임기만료되는 박동열 이사장(8회·본부고문·해운대성심병원장)의 후임으로 임기는 2005년1월20~2007년2월4일(잔여임기)이다.

본부 용마장학회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박동열 이사장 주재로 2004년 중간결산보고 및 2005년 예산안 심의와 임원개선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이사회를 개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05예산안'에 따르면, 수입규모는 총 7,900만 6,143원(전년 이월금 1,216만 8,113원·기금 이자 수입금 5,698만원·법인세 환불금 940만 8,030원)이고, 이 재원으로 △법인세 854만 7,000원(이자 수입금의 15%) △일반관리비 131만 2,500원(이사회 회의비 60만원·공과금 6만 2,500원·통신비 등 기타 5만원) △예비비 158만 6,643원을 각각 집행한다.

2004년 중간결산보고(2004.1.1~11.25 현재)에 따르면, 수입부문은 총 7,564만 2,773원(△이월금 1,697만 7,488원 △기금 이자 수입금 5,698만 8,030원 △법인세 환급금 1,018만 9,660원)이고, 이

재원으로 목적사업비 5,263만원(△경남고 졸업생 장학금 4명 200만원 △경남고 야구부 감독·코치 급료 4,150만원 △경남중 야구부 감독 급료 913만원)과 법인세 727만 1,280원(이자 수입금의 15%), 운영비 8만 1,870원(통신비 등), 이월금 1,569만 9,623원(은행 보통예금 잔액) 등을 각각 집행했다.

특히 이사회는 임원개선에서 11명의 이사(8회 박동열 이사장·5회 박종구·8회 장혁표·9회 박한복·11회 안강태·12회 이규만·16회 조길우·17회 서정승·19회 이용흠·22회 박재상·22회 김원주) 중 임기만료(2005.1.19) 되는 박동열 이사장 후임에 안강태 이사를 선임했고, 박종구 박한복 이규만 이용흠 박재상 등 5명의 이사와 방봉우(10회) 김태우 감사(27회)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동창회 '04정기총회' 성황  
기별야구대회 우승 제39회 등 단체·개인상 시상

박성배(51회)등 大在후배 셋 동문 자녀 이수현·이남희 장학금 각각 200만원 받아

재경동창회는 지난 11월15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200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천신일 회장(15회·세종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 제1부 기념식은 박호문 사무국장(15회)의 사회로, 내빈-참석 동문 소개·회장 인사·격려사(정동식 명예회장)·경과보고·결산보고-예산안 의결·기별야구대회 입상자 시상·장학금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식 명예회장(1회·본부 고문)과 한준석(3회) 문택상(4회) 박영식(7회) 조석제(8회) 김경희(9회) 김성규(11회) 이규만(12회) 이상택(13회) 신준호 고문(14회), 홍용찬 수석부회장(16회) 등 회장단 등 350명이 참석했다.

천신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택으로 동창회의 기반이 한층 굳건해졌다"며 "회장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참



여하는 동창회·유익한 동창회·재미있는 동창회'로 도약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 회장은 제36회 기별야구대회(서울)에서 우승한 제39회와 준우승한 제31회에 각각 우승기와 준우승컵을, 3위 제19~21회 연합팀·응원상 제41회에 각각 트로피를 수여했다.

또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김병제 동문(39회)과 수훈선수로 뽑힌 김홍성 동문(39회)을 비롯해 우수상 이상진(20회) 조기준(31회) 최영태(39회), 미기상 조정제(31회) 유영주(48회), 타격1위 최장호(20회) 타격 2위 우정욱(25회) 타격3위 이상률 동문 등에게 메달과 부상을 수

여했다. 그리고 대학 재학 중인 박성배(51회·한양대 3년) 고성희(52회·한국의외어대 3년) 조진욱 동문(57회·한양대 2년)과 동문 자녀인 이수현(17회 이준학 동문 아들·경희대 1년) 이남희(22회 이상석 동문 아들·홍익대 3년)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담 속에 만찬을 마친 동문들은 제2부 '가곡의 향연'에서 안형열(테너) 석금숙(소프라노) 유성희(메조소프라노)등 세 교수가 선사한 가곡들을 감상했다.

총회는 이날 오후 9시10분 교가제창(지휘:김경희 고문)을 끝으로 폐회했다.

재경동창회 2004년 정기총회(11월15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천신일 회장(15회)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적은 투자로 큰 효과 거두는 회보 광고!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환경 사형의 화강실 문헌을 추구합니다. 막대한 조형수의 진공식 변기 시스템

독히 제품성

베리나 에피소드 있다. 용마가족의 영광을 만나다. - 후원회와 후원자

동경외경매장장의 제1회 용마골프대회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유아·초등·중등·영어학원

Little Campus 리틀캠퍼스

051-553-3333

제37회 정기회 임원 명단

이명준(15회) 회장, 천신일(15회) 부회장, 박호문(15회) 사무국장, 정동식(1회) 수석부회장, 한준석(3회) 문택상(4회) 박영식(7회) 조석제(8회) 김경희(9회) 김성규(11회) 이규만(12회) 이상택(13회) 신준호(14회) 홍용찬(16회) 등

# 국내외 지역·동기회별 송년잔치 풍성

### 울산지역 용마가족 200여명 참석...신임회장 박홍조(22회) 선출

울산지역 용마가족들이 지난 12월9일 저녁 울산문수구청 컨벤션홀에서 벌치고 있는 송년어울마당.

이쉬움을 남긴 채 갑신년이 저물고 있다. 국내외 각 지역회와 동기회 등은 저마다 어려웠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용마의 밤'을 열어 마음을 추스리고, 희망의 새해맞이 설계에 분주하다.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9일 오후 6시30분 울산문수구청 컨벤션홀 티파니룸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04용마의 밤' 행사를 열었다. 양동건 회장(18회·유화에너지 대표이사)이 주재한 축제에는 울산지역 고문단과 집행부 임원, 본부동창회 정행권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과 김병수 총무부장(22회), 동문·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1부 정기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회칙 일부를 개정했고, 임원개선을 통해 박홍조 부회장(22회·본부 부회장·삼우교통 대표이사)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과 감사 선임권은 박 신임회장에게 위임했다(사회·강경수 사무국장·20회). 제2부 여흥 한마당은 동문·가족별 장기자랑·부부열창·부인 노래자랑 등으로 위어졌다.

### 경열회 부인동반 시끌법석

경열회는 12월10일 오후 6시 서울 스토리텔링 5층 그랜드룸에서 연말 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벌



### 시카고회·경열회·김래회·등대회도 '신바람'

였다. 이근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잔치에는 부인 동반 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 장기자랑·열창 한마당

김해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10일 오후 6시30분 김해 상아예식장 연회실에서 박세갑 회장(15회)을 비롯한 동문·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잔치는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행운상 추첨 등으로 이어졌다.

### "다시 뛰자" 재충전 결의

등대회(부산권 해운·항만·수산업계 동문 모임)는 12월7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통

운빌딩 18층 뷔페파크에서 송년 잔치를 벌였다.

김경재 회장(19회·세영선박공업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용마가족 60여명이 참석, 제1부 기념식에 이어 제2부 여흥 한마당을 펼쳤다.

### 노래자랑 속 아쉬움 씻어

미국중서부회는 지난 12월12일 오후 6시(현지시간) 시카고의 김중환 총무(20회) 자택에서 '04용마의 밤'을 열어 화합과 결속을 재확인했다.

최윤환 회장(14회)의 주재로 열린 이날 잔치에는 부인 동반 30여명이 참석, 정답을 꽃 피우는 가운데 노래자랑 등으로 아쉬움을 씻어냈다.



제39회 선수들과 응원단이 우승기를 앞세우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승·준우승팀에 각각 용마기와 준우승컵을 수여한 후 폐회사를 통해 "6주간의 경기에서 선수들의 파인 플레이와 응원단의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 대회의 전통과 기본정신을 뜻 깊게 계승하는 데 정성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단체상 ▷우승 : 제39회 ▷준우승 : 제29회
-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 하성포(39회) ▷최우수 투수상 : 문병훈(39회) ▷감독상 : 정의창(39회) ▷수훈상 : 김세원(29회) ▷타격1위 : 고희남(29회·6할6푼7리·21타수 14안타) ▷타격2위 : 추연철(29회·6할4푼3리·14타수9안타) ▷타격3위 : 박종국(39회·5할2푼9리·17타수9안타) ▷감투상 : 이범익(29회) 이승기(39회) ▷미



### 절치부심 강성훈(29회) 棋王에 등극

### 제4회 용마바둑회장배 개인대항바둑대회

지난 11월 21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제4회 용마바둑회장배 개인대항바둑대회(사진)에서 강성훈 동문(29회)이 최강부 패권

을 차지, '천하통일'의 기왕(棋王)에 등극했다. 전년 대회 기왕이었던 이관선 동문(28회)은 강 동문에게 밀려 준우승에 그쳤다.

### 용마추추

우리 제18회 동기생들은 함급의 나이 탓인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한때는 90%가 넘었으나 지금은 80% 정도가 컴맹·넷맹이다. 이들은 컴퓨터나 인터넷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우리 동기회는 자랑스럽게 스스로 만든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 내용도 아끼지 않고 방문자 수도 하루에 20~30명쯤 된다. 처음에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일조차 서툴렀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다. '애살'이 많은 친구는 컴퓨터를 좀 아는 친구에게 물어 꼭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나름대로 인터넷을 즐기고 있다.

홈페이지 설치 1년여를 넘긴 지금은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의견을 올리는 친구들이 꽤 늘었다. 동기회의 각종 행사도 게시판에 미리 예고하고, 등산이나 낚시대회가 끝난 뒤 산행기나 르포기사도 게재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친구

도박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5~6명만 빼놓고 휴대폰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최근 우리 동기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다름이 아니라 공지 사항을 알릴 때 휴대폰메시지를 이용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값싸게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 이 방법을 몰랐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디지털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김동현군이 타계했을 때 처음 휴대폰으로 소식을 알리는 방법을 택했다. 이 일은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 발견에 못지 않은 '대발견'에 비유되고 있다.

20~30대 후배들에게는 이런 일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다. 그러나 컴맹·넷맹을 넘어서 폰맹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동기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두고 '엄청난 변화'라고 말하기에 전혀 지나침이 없을 듯하다.

### '로터즌'으로 일어나 디지털사회 속으로

### 이재일

제18회·e-시사칼럼니스트



들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고 타국에서의 생활을 전해주기도 한다.

덕분에 뒤늦게 e-메일이 무엇인지, 인터넷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늙은 네티즌'들은 무척 재미있어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의 일로만 여기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넷맹들에게 'e-메일을 모르면 앞으로 손주들과 친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고 겁을 주지만,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컴퓨터를 멀리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아직까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더러 있다. 그들은 컴퓨터를 모르고, 휴대폰도 안 갖고 있으니 세상에 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컴퓨터를 몰라서 남 모르는 스트레스를 받고, 휴대폰이 없어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년 전만 해도 부산에 사는 동기생들 가운데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반 정

그 동안에는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총무들이 하루종일 전화통과 씨름을 해야 했다.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문상을 하지 못하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그럴 경우 원망을 듣는 것은 총무들이었다. 이렇듯 총무들을 괴롭히던 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었으니 그 기쁨이란...

도 또한 정보화의 물결을 따라 붙어다치는 디지털바람이 무척 거세다. 이 바람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이순(耳順)의 나이를 맞은 우리 동기생들은 강하게 부는 디지털바람에 나름대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적응하고 있는 데 대해 스스로도 대견해 하고 있다.

50·60대 동문들이여, 하루빨리 인터넷과 벗하십시오! 그래야 노후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동문들 모두가 '로터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 내년 졸업 20주년 홈커밍데이 금의환향

# 제39회 용마기 쟁취

### 본부 주최 기별야구대회 제29회 '눈물의 준우승' 최우수선수상 하성포(39회)

제39회 동기가 숙원의 용마기를 품에 안고 졸업20년 만에 치르는 홈커밍데이축제에 개선, 금의환향의 감격을 누리게 됐다.

제39회는 올해 서울대회에서도 우승, 대회 2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제39회는 지난 11월6일 경남고구장에서 폐막된 제36회 본부회 장기 기별대항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역시 졸업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축제에 우승기를 봉납하겠다는 명승부를 펼친 제29회를 12-11 간발의 차이로 물리치고 패권을 쟁취했다(관전기사 6·7면).

제39회는 야심에 찬 제29회를 맞아 핸디 5점에 눌린 1회말 공격에서 이종운의 홈런 등으로 3점을 올려 맹추격에 나선 후 2회말 대거 5점과 6회말 1점을 보태, 5회초 1점과 6회초 3점을 빼내

제29회와 동점을 이뤘다.

전·현직 모교 감독(▷29회·정기조 선수·중앙대 감독 ▷39회·이종원 선수·경남고 감독)이 용호상박전을 벌인 가운데 제39회는 7회말 승부를 가렸다. 9번 타자 정호현이 끝내기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7회초 이범익의 2타점 적시타로 우승을 눈앞에 둔 제29회를 1점차로 물리쳐 대회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정행권 본부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은 시상식을 주재, 우

- 기상 : 박병준(29회) 김형욱(39회) ▷인기상 : 김기영(29회) 정호현(39회) ▷인기가족상 : 조운제(39회) ▷공로상 : 전광열(44회) ▷홈런상 : 정상국(29회) 김용진 이동훈(이상 35회) 김홍기(42회) 전세준(43회) 김학주 안병규(이상 44회) 김민석 조창래(이상 45회).

학주(24회)·3위 소유남(28회)

▲특별상 강우훈(17회 기우회장)·이국남(부회장)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 거행된 기념식은 집행부 및 내빈 소개·김동회 용마바둑회장(18회·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개회사·정행권 본부회장(9회·협성운수 회장) 격려사·대국운영 지침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사회임강택·22회).

### 최강부 준우승 이관선(28회)

손상수(20회)·이명수(16회)·박판기(26회) 일반부 우승

특별상 강우훈·이국남(각 17회)

임우근(15회) 참치캔 50세트 특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는 예선 3국·본선 3국으로 치러졌다.

특히 김준영 프로 4단(한국기원 전문기사)을 특별 초청, 다면지도기 등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한성기업 회장인 임우근 동문(19회)이 참치캔 50세트를 특찬했다.

Billboard

전화 (051) 245-7551~3

팩스 (051) 245-7550

# 용마산악회 월색열정 망운산 '할할'

## 동문·가족 110명 늦가을 단풍볼꽃 더욱 수놓아

용마 알파니스트 110명의 늦가을 월색열정이 단풍볼꽃으로 수놓인 남해 망운산(785m)을 더욱 타오르게 했다. 지난 11월14일, 본부 용마산악회 제18차(04년 4차) 정기산행대회가 열린 경남 남해 망운산은 정준수 회장(15회·부산대 교수)이 이끈 '용마군단'의 호연지기에 휩싸였다. 가족만도 22명이나 동참한 이날 일행은 오전 11시 화방사를 출발한 지 1시간50분 만에 정상에 올랐고, 숨을 고른 후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즐겼다. 용마가족들은 앞서 정상-망운암 갈림길에서 첫 휴식을 취했고(11:50), 정상 바로 아



래 센터에 모여(12:30) 갈증을 풀었다. 하산은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일행은 759봉 갈림길(14:15)~관대봉(15:00)~신기마을-남산 갈림길(15:20)~남산 등산기점(15:50)을 거쳐 오후 4시10분 남해 공설운동

장 주차장에 도착, 발품을 댔다. 한려해수탕에서 피로를 말끔히 씻은 일행은 단창회센터에서 자리를 잡아 남해바다의 달착지근한 생선회로 허기를 채웠다.

용마산악회 회원들이 단풍볼꽃으로 수놓인 남해 망운산 정상을 오르기 전 기념사진으로 걸어가고 있다.

### 재경경팔회 송년잔치

재경경팔회는 지난 12월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리더스클럽에서 동문 19명과 부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환 회장 주재로 제1부 '2004년 정기총회', 제2부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여영호 동문이 처음 나와 박수를 받았고 여홍(사회 배주원)으로 아쉬움을 씻었다. 이영창(30만원)·김영학 박희옥 이현문(각 10만원)·추경석 동문(5만원)이 특선금을 냈다.

### 산우회 영남알프스 등정

재경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10월21일 영남알프스산행을 단행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일행 11명은 이날 아침 7시 전날 민박을 함께 한 부산의 세 친구와 함께 내원암 쪽 계곡(2진은 표충사 쪽 계곡으로)을 택해 천황산

(1,189m)에 올랐다. 일행은 재약산~사자평~고사리분교에서 합류했고, 간단한 요기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1시에 하산, 일정을 마쳤다(관련기사 5면).

### 골프우승 이양회·전은희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12월2일 안성CC에서 제135회 월례회(24명 참석)를 열어 남자부는 우승 이양회(87타·-1)·준우승 송기성·3등 김영길·니어리스트상 이호석·행운상 이유한 동문이, 여자부는 우승 전은희·준우승 김정화(A)·니어리스트상 김정화(B)가 차지했다.

### 팔선회 바둑우승 전영배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우환)는 지난 12월4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일기원(옛 일풍기원)에서 송년대회를 벌여(8명 참석) 우승 전영배·준우승 배주원 동문이 각각 차지.

### 김재섭(18회) 주 러시아 대사 부임

김재섭 동문(18회·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지난 12월10일 주 러시아 대사에 부임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외무고시(2회)에 합격, 외교부에 들어간 이래 서남야과장·주 독일공사·구주국 심의관·국제기구국장·주 체코대사·주 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 경열회 클럽별 송년잔치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 각 친목회별 12월 송년잔치가 흥겹게 꾸며지고 있다. 안산화학회(회장 박칠민)는 14일 오후 12시 30분 안산 중앙역 다릿목추어탕집에서, 분당토요회(회장 서진홍)는 18일 오후 5시 30분 분당기왓집 순두부에서 모였다. 강남화학회(회장 김해룡)는 28일 오후 12시 30분 서초기왓집순두부에서 송년회를 벌인다.

테니스 모임 정우회(회장 최형백)는 16일 오전 11시 관문테니스장에서 기량을 겨뤘고,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연말 세 번째 산행으로 19일 안양근교 수리산에 오를 예정이다. 사니조아는 앞서 11일 우면산, 4일 대모산에 등정했다. 바둑 모임 동수회(회장 김상태)는 25일 정오 회장 사무실에서 송년수담을 즐기고, 강북화학회(회장 강재환)는 지난 7일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송년회를 치렀다.



## 시민 초청집회 열어

### 용마신우회 정기총회...신임회장 이채연(16회)

### 모교 재학생돕기 성금 모금

부산권 기독교동문 모임인 용마신우회는 지난 12월2일 오후 6시 부산 중구 보수동 광복교회(담임 : 신창수 목사)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 제2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사진). 이요셉 회장(15회·리틀캠퍼스 이사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기독교동문·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인재의대 교수인 이채연 동문(16회·광복교회 장로·원내)을 선출했다. 앞서 총회는 이사회장에 정금출(8회·동일교회 장로), 부회장에 강돌이 동문(14회·동래중앙교회)을, 상임고문에 이요셉 직전회장(동서교회 장로)을 각각 추대했다. 이어 부산시민 초청집회를 열어 고신대 교수인 안 민 동문(31회·시직 동교회 장로)이 '만남이란 주제의 말

씀을 전했고 간증 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임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모교 재학생 돕기 성금 150만원을 모았다.

- ▲회장은 이채연
- ▲부회장은 허진호(17회) 이대운(18회) 김부환(19회) 안재상(20회) 한인환(21회) 노세현(22회) 박중현(23회) 문휘영(24회) 김덕우(25회) 김태규(26회) 김준영(27회) 강현안(28회) 강천(29회) 유정동(30회) 안 민(31회)
- ▲감사는 강현진(20회) 공기화(21회)
- ▲총무=도명세(23회)·부총무 김영식(24회) 김대현(33회)
- ▲협동총무=박자민(21회) 이민희(25회) 윤명관(35회)
- ▲서기=강순석(21회)·부서기 김승욱(20회)
- ▲회계=최현림(25회)·부회계 예종복(25회)

### 제15회 회관 9돌잔치 독서기증운동 전개키로

제15회 동기회관 개관 9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22일 오후 5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오피스텔 610호 동기회 사무실에서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은 한해수 위원장 인사말·박찬호 동기회장 격려사·조일량 운영실장의 회관운영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의시간에는 회관에서 독서 즐기기 풍토 조성 안이 화제를 모아 독서기증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승학산 등산대회 30여명이나

사하회(회장 오세창)는 11월23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 동백숲갈비집에서 송년회를 겸한 제58차 정례회(16명 참석)를,

일오산우회(회장 김형영)는 21일 승학산에서 동문·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4차 등산대회(산행대상 손부홍)를 각각 열었다.

### 송년회 겸한 정례회 성황

의약회는 15일 오후 7시 부산 서구 동대신동 오막집에서, 사모회는 12일 오후 7시 부산 남구 남천동 청정하우마을에서 각각 단합회를 열었다(이상 회장 손부홍). 또 가람회(회장 김중광)는 11일 오후 7시 죽마고우에서, 화친회(회장 임병철)는 9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도일식집에서 제148차 모임을, 삼팔회(회장 허두영)는 8일 오후 7시 중화요리점 장춘방에서 제61차 모임(부부동반 17명 참석)을, 이화회는 9일 오후 7시 미락정에서, 삼육회(회장 이승남)는 4일 오후 7시 울진거북이횃집에서 각각 정례회를 열었다.

### 제16회 기독교신우회 출범 초대회장 최안홍 선임

제16회동기회 기독교신우회 창립총회가 지난 11월16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보수동 광복교회에서 열려 최안홍 동문(미키소아과의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초대 집행부는 최 회장과 장사총 부회장, 김형석 최영욱 감사, 이채연 총무·윤세진 서기·김인국 회계 등으로 구성했다. 이사회는 회장 김상호(인제의대 교수), 부회장 김현호(동아대병원 교수), 이사 김경도 김수석 김일규 김재승 노상현 오형철 윤호주 이백제 임승언 조은일 동문을, 대의원은 최안홍 회장(겸직)과 이종승(부산지하철선교회 목사) 이동백(한마음동산교회 목사) 허중화 동문(경성대 교수)을 대의원으로 선임했다.



본부동창회 홈페이지는 용마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동창사회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www.kyungnam.or.kr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하십시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 이, 그 > i, j; . ^ .



용마가족 여러분을 회보의 집필자로 모십니다. 시·수필·여행관광기·취미생활수기·학창시절 추억담·시평·제안 등 빛이든 자료 사진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O/T 411호  
TEL : (051)245-7551~3 FAX : (051)245-7550

# 익새평원 · 계곡단풍 황홀한 앙상블

재경경팔산우회 영남알프스 등정기 이규환

경팔산우회는 지난 10월21일 오랫동안 버르던 영남알프스산행을 결행했다.

부산의 세 친구와 함께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일행 11명은 아침 7시 길을 재촉했다. 코스는 당초 예정과 정반대인 내원암 쪽 계곡을 택해 천황산에 오르기로 했다 (2진은 표충사 쪽 계곡으로).

처음부터 가파른 석벽길이었다. 아슬아슬 곡예를 하듯 오르고 또 올라야 하는 고행-숨이 차다 못해 막힐 듯... 쉬다 오르다를 반복하다 출발한 지 약 3시간 만에 정상상을 밟았다.

주변엔 풀·나무 한 그루 없다. 영겁을 두고 풍화된 돌산 그 위에 표석 '천황산(天皇山)'이

세찬 바람 속에 버티고 있었다.

해발 1,189m. 준비해간 맥주를 한 컵 부어 놓고 3배, 산신께 예를 올렸다. 그리고선 한 잔씩 나누며 갈증을 풀었다. 그 시원한 맛은 속세의 맛이 아니었다.

가까이론 재약산이 건너편서 손짓하고, 발 아래로는 광활한 분지고원 익새밭. 고사리분교 기점 해발 700~800m까지 펼쳐진 분지가 바로 사자평이란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어 기념촬영을 마치는대로 하산을 서둘렀다. 익새공원 초입 간이주막에서 동동주 한 사발씩으로 갈증을 달랜 후 재약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1진은 정상으로, 2진은 9부 능선서 길을 돌려 사자평으로 내

려와 고사리분교로 내달았다.

정오가 지나서야 약속된 고사리분교에서 모두 합류했다.

간단한 요기로 휴식을 끝내고 오후 1시께 하산. 안전을 위해 층층폭폭 계곡길 대신 산 중턱 큰 길을 택했다. 계곡의 단풍은 이번 산행의 백미. 이에 화답하듯 등 뒤 암벽의 단풍 또한 절경이다. 황홀한 빛깔이 파란 하늘 아래 영롱하게 떠 있었다. 계곡을 꿰뚫는 물소리와 함께 세속의 번뇌를 잊게 했다.

정말 알프스는 알프스였다. 맑고 푸른 하늘과 높은 산, 깊은 계곡과 폭포, 거기에 명찰이 자리 잡고, 광활한 고원분지의 익새평원 그리고 고운 단풍이 한데 어울린 자연의 교향시... 바로 영남알프스의 자랑이요 보배다. 오르내리기 장장 8시간... 오랜만의 멋 있는 산행이었다.



# 능선에 신라 불교문화 '활짝'

본부 용마산악회 단석산 등정기 신남석

본부동창회 용마산악회 제17차 (04년 3차) 정기산행대회가 열린 지난 9월 5일 단석산(827m·경북 경주시 단천읍~산내면). 동문 108명과 가족 13명 등 총 121명의 용마가족들이 토해낸 호연지기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 10시40분경 정준수 회장(15회·부산대 교수)의 총지휘에 일사불란하게 따른 일행은 산내면 오덕선원(송선리 우중골) 앞 너른 공터에서 오기현 산행대장(20회)의 장비점검에 이은 리더로 산행을 시작했다.

앞서 간단한 기념식은 정준수 회장 인사말, 한동대(9회·초대회장) 제병민 명예회장(13회·2대회장) 소개 및 격려사, 그 동안 수고한 박종규 직전총무(31회)의 노고 치하, 서민석 신입총무(30회)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일행은 오 대장으로부터 산행

시 유의사항 설명을 들은 후 산행대장과 이종태(28회) 동문을 선두로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산행을 시작했다. 단석산은 경북 경주 단천읍에서 산내면으로 가는 도중 우뚝 솟아 있는 산으로, 경주 부근에서 가장 높다.

산행 1시간 정도 지난 오전 11시40분경 가파란 경사길을 올라오니 7~8부 능선이 나타났는데, 이곳에 4개의 바위로 둘러싸인 자연암석에 마애불상군이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이 ㄷ자형의 상인암은 신라 최초의 석굴사원(국보 제199호)으로 고신라 불교미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이에 연결하여 신선사가 있다.

다시 30분 정도 급경사를 올라가니 바로 정상(12:40)이다. 주위가 운무로 가득 찼다. 정상에는 '김유신 장군이 바위를 양단했다'는 단석이 있고, 주위에 돌로

답을 여러 개 쌓아 놓았다.

동기회별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다. 특히 제13회와 제15회 동문들이 빙 둘러앉아 반주로 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부럽다.

식사를 마친 대부분 동문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발 준비를 하는데, 저쪽에서 6~7명의 동문들이 아직 식사도 하지 않고 참선을 하듯 꾀웃하게 둘러앉아 있다. 확인해보니 오늘 산행에서 맨 끝을 맡은 박종규(31회) 동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같이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역시 산사나이들이다.

날씨가 의외로 쌀쌀해 예정보다 20분 정도 일찍 하산했다. 하산길은 생각보다 가파르다. 가끔 위, 아래서 '아악!' 하는 괴성이 들렸다. 전망대도 지나고 다소 시간적 여유도 있는데 쉬어 가자는 회원이 없었다. 1시간30분 정도 내려오니 방내못이다. 방내마을에 오후 4시20분 도착, 산행을 끝마쳤다.

## 동문이퍼낸새책

### <인터넷시대, 그 빛과 그림자>

이재일 (18회) 지음

정보시사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이재일 동문(18회)은 최근 <인터넷시대, 그 빛과 그림자> 제하의 정보시사칼럼집을 출간했다(도서출판 호산당 펴냄·352쪽).

8년 전 <컴퓨터를 커먼 세상이 보인다>를 펴내 관심을 모았던 이 동문이 이번에 펴낸 <인터넷시대, 그 빛과 그림자>는 제1~2부로 엮여져 있다.

제1부 '인터넷, 그 모든 것을 바꾸는 힘'에는 >컴퓨터로 찾아내는 나의 동반자 >제레늄까지 바꾸는 인터넷 >인터넷 블랙홀에 빠져버린 40·50대에게 >안방을 변혁시키는 디지털혁명 등 50편이, 제2부 '인터넷 세상, 네트피아가 될 것인가'에는 >오히려 불편만 끼치는 ARS전화 >해프닝으로 끝난 해외 인터넷복권 >맞춤법을 흔들고 있는

사이버언어 >어린 중학생의 죽음을 가져온 사이버폭력 등 38편이 각각 실려 있다.

이 동문은 책의 서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터넷은 우리들이 가만히 않아서 온갖 일을 다할 수 있게 해준다. (중략) 이처럼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



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인터넷은 필수나, 선택이냐의 차원을 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존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서울신문사에서 25년간 기자생활(이 중 20년간 사회부에서 근무)을 하다가 과학정보부장을 끝으로 퇴사, 교통신문 이사·편집국장과 인터넷라이프 편집인·편집국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 <시애틀에서 플로리다까지>

강정운 (24회) 지음

강정운 동문(24회·창원대 행정학과 교수)은 자신의 미국 유학생들과 2000~2001년 시애틀의 워싱턴대 플라이트 교수 시절 생활, 이 무렵

16,000km 대륙횡단 자동차 여행, 2003년 시애틀 재조명 등을 다룬 에세이집 <시애틀에서 플로리다까지-미국 대륙횡단 로드트립>을 최근 출간했다(도서출판 대명 펴냄·321쪽).

이 책은 △제1부 '시애틀의 봄·여름(금문 이외의 만남 등 35편)

△제2부 '시애틀에서 플로리다까지 (출발 첫날의 자동차 고장 등 2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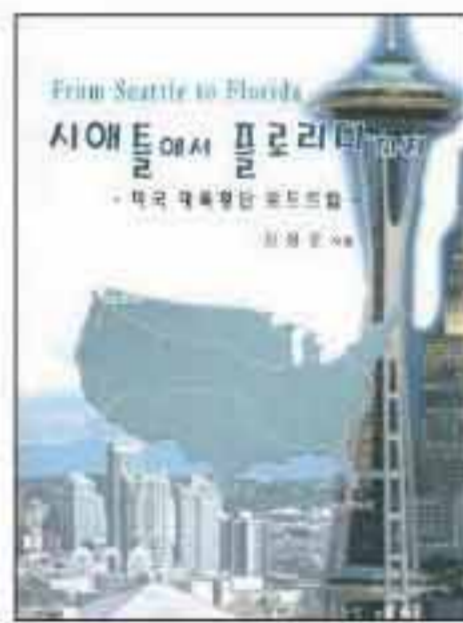
△제3부 '플로리다에서 시애틀까지 (에버그레이즈의 악어 탐험 등 24편)

△제4부 '시애틀 가을·겨울(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등 20편)

△제5부 '다시 찾은 시애틀(금문교는

또 안개 속에 등 18편)' 등 모두 5부로 구성했다.

이 책은 미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눈을 키워주며 여행자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로드트립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강 동문은 책의 서문에서 "미국의 땅과 자연, 그리고 그곳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 속과 감정의 고을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느낌과 경험을 글로 남기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강 동문은 부산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도시정책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창원대 사회과학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공동의장·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어디서 무엇을

서초3동 1487-63 서초1차 e-편 한세상아파트 101동603호, 02-522-4024  
박상수=33-41 149 ST. FLUSHING, NY, 11354 USA  
박영기=150 SPRING LANE PARAMUS, NJ 07652 U.S.A.  
최한규=(재미)10월28일 부인 별세, 808-395-5805

제 12회  
이원우=9월18일 장남 상화군 롯데호텔에서 결혼

김홍호=부친 별세  
정현대=11월21일 올림픽예식장에서 차남 화영군 결혼  
이환철=(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온천1동 189-134 반도아파트 907호, 051-553-5218, 011-9778-5219  
박은령(영석)=11월28일 황실에 식장에서 장남 세준군 결혼

제 13회  
문동오=10월 3일 장남 결혼  
이종두=10월 9일 차남 결혼  
문현길=10월9일 딸 결혼  
박건일=10월10일 아들 결혼  
허갑도=10월10일 차남 결혼  
최박지=10월13일 모친 별세  
최 혁=10월23일 장남 결혼  
박진태=10월30일 딸 결혼

최상호=11월20일 결혼  
이경제=11월21일 차남 결혼  
조준탁=12월5일 아들 결혼  
이정웅=12월5일 딸 결혼  
김영식=12월5일 딸 결혼  
박안호=12월18일 장남 결혼  
신민철=(자택이사)부산 사하구 하단2동 990-22, 051-292-0317  
최영환=(자택이사)부산 남구 대연3동 삼익그린아파트 106동02호

제 14회  
박남조=(주)태원이엔지 대표, 부산 금정구 남산동 115-30, (사무실)051-518-0048, (자택)051-516-0113, 010-4544-6667  
김화옥=(주)HA스틸 부사장,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535-1, 051-  
(6면에 계속)

제 8회  
신연식=(주소변경)서울 성동구 홍익동 302-5  
정혜근=7월10일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교회 기념 피아노독주회 개최  
박희옥=11월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Lotus룸에서 교회찬치 겸 에세이 출판기념회 개최  
문석주=10월8일 지병으로 별세

제 9회  
김중령=8월13일 전쟁기념관에서 아들 결혼  
허원구=8월20일 모친 별세  
김태준=전 남가주지역동창회 회장, 10월16일 일시 귀국하여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진 후 10월29일 LA로 귀임  
김경희=재경동창회 고문, 부산 시중교 재경동창회 회장, 10월 26일 부산여교 재경동기회 정기총회, 10월27일 남성여교, 11월2일 경남여교 정기총회 참석하여 축사  
박성조=베를린 자유대학 정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2005년 8월31일까지 본직 예정

제 10회  
심영환=11월6일 부친 별세  
고석명=(자택이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3동106호  
정상수=(전화변경)016-373-2292  
이병철=(자택이사)서울 서초구

**결승전**

**제29회 - 제39회**  
(11월 6일 경남고 14: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9회	5	0	0	0	1	3	2			11
제39회	3	5	0	0	0	1	3			12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9회	33	6	9	6	4		3	6	7	5
제39회	35	12	13	12	10		10	4	12	

▲제29회  
▷투수 = 장현경 이범익  
▷포수 = 추연철 김부겸  
▷3루타 = 고용남

▲제39회  
▷투수 = 문병운 홍진기  
▷포수 = 진정호  
▷홈런 = 이종운  
▷2루타 = 김형욱

**준결승**

**제29회 - 제42회**  
(10월 31일 경남고 12: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9회	6	3	4	0	1	0	1			15
제42회	0	1	2	0	3	3	0			9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9회	31	9	11	9	6		7	2	7	6
제42회	35	9	16	9	8	1	3	11	8	

▲제29회  
▷투수 = 장현경 이범익  
▷포수 = 추연철 김부겸  
▷2루타 = 고용남 김태명 박병준

▲제42회  
▷투수 = 박일수 이영환  
▷포수 = 이영도  
▷3루타 = 김우진  
▷2루타 = 이영환 신일호 이영도 박일수 김홍집

**제24회 - 제39회**  
(10월 31일 경남고)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4회	2(7)	0	1	0	0	0	0			
제39회	2	1	4	0	1	6				

(5면에 이어)  
972-3659, 019-601-3631  
조돈만=11월13일 울산 목동가족 문화센터에서 차남 용준군 결혼. 052-267-7600, 011-410-7607  
신현호=신현호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0월23일 목화예식장에서 차남 민철군 결혼. 051-243-5533 (자택)051-553-0053  
최성웅=코오롱약국 대표. 10월 24일 마산 사보이관광호텔에서 딸 소희양 결혼. 055-252-8656  
김창무=10월31일 서울 6.3빌딩 별관 3층에서 장남 영석군 결혼. 051-262-8481  
문운웅=(주)프로테오일 대표. 11월14일 메리움 프린스홀에서 장남 지원군 결혼. 051-637-3614. (자택)051-634-7324

**제 35 회 본부회장기 기별야구대회 (부산) 전적상보**

이 팀별 대전 전적은 역대 기별야구대회 기록 보존을 위해 해마다 대회 성료 후 일괄 게재하고 있습니다.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4회	26	10	3	3	3		2		2	7
제35회	34	14	14	14	8		4	2	2	

▲제24회  
▷투수 = 정기춘  
▷포수 = 강종문  
▷2루타 = 오기봉

▲제39회  
▷투수 = 홍진기 문병운  
▷포수 = 진정호  
▷홈런 = 신선규  
▷3루타 = 진정호 이승기  
▷2루타 = 박종국 진정호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5회	31	5	8	5	2		2	10	5	2
제39회	32	12	14	12	9		4	5	6	

▲제35회  
▷투수 = 이태원  
▷포수 = 박희찬  
▷홈런 = 이동훈

▲제39회  
▷투수 = 문병운 홍진기  
▷포수 = 진정호  
▷3루타 = 진정호 홍진기  
▷2루타 = 정도현 정의창

▲제42회  
▷투수 = 이성환  
▷포수 = 이병도  
▷홈런 = 김홍기 신일호 이병도  
▷2루타 = 이동기 이성환

▲제44회  
▷투수 = 장문영 최기영  
▷포수 = 박중현 정진식  
▷2루타 = 정도영

▲제22회  
▷투수 = 김승규  
▷포수 = 이민형  
▷2루타 = 김승규 김도살

▲제26회  
▷투수 = 김현수  
▷포수 = 최수일  
▷3루타 = 하성봉  
▷2루타 = 정철주 김현룡

**제29회 - 제32회**  
(10월 24일 경남고 11:4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9회	3	1	3	1	11					19
제32회	0	0	0	0	0					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9회	39	18	19	18	3	0	2	6	8	1
제32회	16	0	2	0	1	0	1	5	2	0

▲제29회  
▷투수 = 장현경  
▷포수 = 추연철  
▷3루타 = 김세원  
▷2루타 = 고용삼 김은경 정상국 김세원 김기영

▲제32회  
▷투수 = 정준환 기영수  
▷포수 = 기영수 박종우

**제24회 - 제27회**  
(10월 24일 경남고 10: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4회	2	1	0	2	1	4	0			10
제27회	2	0	3	0	0	0	3			8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4회	31	10	12	9	1	1	5	3	7	1
제27회	30	8	9	8	3	1	4	5	6	0

▲제24회  
▷투수 = 정기춘 변정규  
▷포수 = 강종문  
▷3루타 = 김학주  
▷2루타 = 오기봉

▲제27회  
▷투수 = 조영일 배기용  
▷포수 = 황기양  
▷3루타 = 배기용  
▷2루타 = 박찬석

(7면에 넘김)

**8강전**

**제24회 - 제26회**  
(10월 30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4회	4	2	0	7	3	0	0			16
제26회	1	4	0	0	0	0	0			5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4회	36	15	17	15	1		2	3	5	1
제26회	27	5	6	5	1		2	4	2	

▲제24회  
▷투수 = 변정규  
▷포수 = 강종문  
▷홈런 = 김학주  
▷3루타 = 황성동 변정규  
▷2루타 = 이종구

▲제26회  
▷투수 = 김현수 최수일  
▷포수 = 강성우  
▷3루타 = 최수일  
▷2루타 = 김현수

**제35회 - 제39회**  
(10월 30일 경남고 13: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5회	3	0	0	0	0	3	1			7
제39회	1	3	3	1	0	4				12

강원수=호승비빌 대표. 11월21일 목화예식장에서 장남 호승군 결혼. 051-203-4004. (자택)051-291-1728  
김 충=11월20일 모친 별세  
서부근=부산의료원 내과. 30여년 미국 생활 청산하고 귀국함.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오션타워 1509호. 051-607-2172. (자택)740-5156

**제 15 회**

심재일=11월1일 지병으로 별세  
권승부=성제 한방병원 의료원장으로 부임.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히 916-40. 054-861-3388  
최상용=11월11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하여 서울, 부산 동기생들

**제28회 - 제29회**  
(10월 30일 경남고 13: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8회	0	3	0	1	0					4
제29회	3	6	0	11	1					21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8회	22	4	8	4	4		1	3	3	
제29회	34	21	22	21	8		2	2	4	

▲제28회  
▷투수 = 김주연 현대행 김부운  
▷포수 = 김부운 송제성  
▷홈런 = 소유삼  
▷2루타 = 송제성

▲제29회  
▷투수 = 장현경  
▷포수 = 추연철  
▷홈런 = 정상국  
▷2루타 = 고용삼 장현경 이범익 김태명 추연철

**제42회 - 제44회**  
(10월 30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2회	4	0	0	3	0	3	3			13
제44회	0	6	0	2	0	0	0			8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2회	32	12	13	12	2		9	3	8	1
제44회	30	8	8	8	7		8	8	9	

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11월21일 귀임. (미국연락처)11621, AYRESHRE, R, OAKTON, VA22124 (전화)703-716-0054  
박중석=11월28일 파로스웨딩홀 6층에서 차녀 지영양 결혼  
배병화=11월19일 지병으로 별세  
김중광=(이전개업)김중광 이비인후과의원 원장. 부산 사하구 감천1동 476-6 수협 2층  
김상차=12월5일 부산예식장 2층에서 차녀 수진양 결혼  
김명배=12월18일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차남

**제35회 - 제40회**  
(10월 24일 경남고 13: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5회	4	0	0	1	2	0	2			
제40회	0	3	0	2	1	0	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5회	35	7	10	7	2	0	3	8	10	2
제40회	32	6	12	6	6	1	0	5	6	0

▲제35회  
▷투수 = 이태원  
▷포수 = 박희찬  
▷홈런 = 김용진 박희찬

▲제40회  
▷투수 = 이성배  
▷포수 = 김병주  
▷3루타 = 양광용 노인천  
▷2루타 = 김영주 2개

**제22회 - 제26회**  
(10월 23일 경남중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2회	3	0	2	0	0	0	0			5
제26회	0	4	5	2	1	0	0			12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2회	21	3	9	3	4	0	2	4	9	1
제26회	31	12	13	12	10	0	4	2	5	0

종현군 결혼  
정준수=12월18일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딸 윤경양 결혼  
이추남=(주)글로벌 에듀케이션 부산·경남 지사장. 051-557-2290. (전화변경)010-2889-2290  
이해룡=9월23일 별세  
박호부=9월26일 지병으로 별세  
이강남=10월3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차녀 혜선양 결혼  
신홍규=10월7일 서울 프리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차남 익수군 결혼  
김대열=10월24일 대구 글로리아에식당 3층에서 장녀 정영양 결혼  
김 훈=10월30일 하모니웨딩홀 3층에서 딸 란 양 결혼  
이창일=(주소변경)부산 수영구 망미동 430-45 2/6 3층. (자택)051-

755-5086. (회사)051-646-8624  
김양일=자하스님. (주소변경)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219 영명암. 055-381-1236  
최광웅=(전화변경)010-6229-0032  
하영수=함께하는 교회 목사. (교회신축)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112. 055-323-1908

**제 16 회**

송자문=9월16일 부친 별세. 10월24일 딸 수진양 결혼  
손경식=유일스텐사 대표이사. 10월24일 장남 병립군 결혼. 남해횃집에서 결혼식  
이명수=용마바둑대회 개인전 을조 우승. (자택이사)부산 사

(7면에 계속)

<6면에서 받음>

**제42회 - 제47회**  
(10월 24일 경남중 15:20)  
제47회 몰수패

**제28회 - 제33회**  
(10월 23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8회	3	1	0	1	0	5	2			12
제33회	1	1	3	1	3	0	0			9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8회	44	10	11	10	10		4	3	13	2
제33회	35	9	11	9	9		1	1	5	

**▲제28회**  
▷투수 = 김준연  
▷포수 = 김부운  
▷2루타 = 김동규

**▲제33회**  
▷투수 = 김재선 고재훈  
▷포수 = 이윤조 공진우  
▷3루타 = 박상국  
▷2루타 = 박상국 고재훈 공진우 손영대

**제44회 - 제46회**  
(10월 23일 경남고 13: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4회	3	7	2	4	0					16
제46회	1	0	2	0	0					4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4회	38	16	13	14			1	1	7	
제46회	22	3	2	3			2	4	4	

**▲제44회**  
▷투수 = 정도영 장문영  
▷포수 = 최주섭 박중현  
▷홈런 = 박중현 안병규  
▷2루타 = 조상화 최주섭 박중현 안병규 하태욱

**▲제46회**  
▷투수 = 정효영 김태운 이정규  
▷포수 = 주창식 정효영

**제36회 - 제39회**  
(10월 23일 경남중 13:30)  
제36회 몰수패

**1 차 전**

**제28회 - 제30회**  
(10월 17일 경남중 15: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8회	6	1	4	3	0					14
제30회	0	1	0	1	1					3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8회	35	13	15	13	4	0	2	7	9	1
제30회	21	3	7	3	2	0	4	4	9	0

**▲제28회**  
▷투수 = 김주연  
▷포수 = 김우윤  
▷2루타 = 김동규 김우윤 조광제 박재훈

**▲제30회**  
▷투수 = 조재우  
▷포수 = 조치훈  
▷2루타 = 황철민 김재중

**제39회 - 제41회**  
(10월 17일 경남중 13:2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9회	2	0	3	2	3	1	3			14
제41회	0	1	0	0	2	1	2			6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9회	38	13	17	13	4		4	5	8	1
제41회	34	6	14	6	3		1	3	8	

**▲제39회**  
▷투수 = 홍진기 문병운 허성포  
▷포수 = 진정오  
▷홈런 = 이종운  
▷3루타 = 이상기  
▷2루타 = 이종운 진정오

**▲제41회**  
▷투수 = 호진  
▷포수 = 신동진  
▷2루타 = 김성일 김득수 윤형배 최병호

**제46회 - 제48회**  
(10월 17일 경남중 10: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6회	1	0	3	2	0	0				6
제48회	0	0	1	2	0	1				4

제46회	25	5	9	5	8		5	8	7	1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희타	사구	삼진	전루	번타	
제48회	27	4	8	4	5		1	5	6	

**▲제46회**  
▷투수 = 이호영 이정규  
▷포수 = 김탁  
▷2루타 = 김태운 이정규 김환수 송영주

**▲제48회**  
▷투수 = 김정철  
▷2루타 = 강대근 이동주

**제44회 - 제45회**  
(10월 16일 경남중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4회	5	7	0	7	2					21
제45회	1	0	5	0	1					7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4회	41	21	23	21	3		3	4	7	
제45회	25	7	11	7	5		1	6	2	

**▲제44회**  
▷투수 = 김정학 장문영 석상봉  
▷포수 = 조상화  
▷홈런 = 전광렬, 유현승  
▷2루타 = 전광렬 신진수 유현승 최주석

**▲제45회**  
▷투수 = 구자삼 김민석 손창오  
▷포수 = 홍진우  
▷홈런 = 김민석 조정래  
▷2루타 = 이동진

**제31회 - 제33회**  
(10월 16일 경남중 13: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1회	2	2	0	0	0					4
제33회	3	3	2	8						16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1회	19	3	7	3	1		4	5	4	1
제33회	28	16	14	16	7		5	7	6	

**▲제31회**  
▷투수 = 조기준  
▷포수 = 안중수  
▷2루타 = 장정남

**▲제33회**  
▷투수 = 박태중 이종호

**박기역**  
▷포수 = 김재선  
▷홈런 = 박상국  
▷3루타 = 김종인 이종호

**제35회 - 제38회**  
(10월 16일 경남고 13:30)  
제38회 몰수패

**제42회 - 제43회**  
(10월 17일 경남고 15: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2회	1	0	1	9	2	2	2			17
제43회	0	1	2	1	6	0	4			15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2회	49	17	13	13	6	2	12	2	11	
제43회	43	15	18	11	6		4	4	6	

**▲제42회**  
▷투수 = 위성광 김효진 이동기 이영환  
▷포수 = 이영도  
▷홈런 = 신일호  
▷3루타 = 이영환 신일호

**▲제43회**  
▷투수 = 김영휘  
▷포수 = 강택룡  
▷홈런 = 전세준 이영호  
▷2루타 = 이학노 양택룡

**제37회 - 제40회**  
(10월 17일 경남고 13:4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7회	2	0	0	1	2					5
제40회	3	3	5	0						11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7회	23	4	6	4	3		1	2	5	1
제40회	28	11	14	11	4		4	5		

**▲제37회**  
▷투수 = 소수현  
▷포수 = 김재현  
▷3루타 = 서민표  
▷2루타 = 소수현

**▲제40회**  
▷투수 = 이성배 임태영  
▷포수 = 노인철  
▷3루타 = 김석용 신영석  
▷2루타 = 최성욱 신영석 노인철 임태영

**제26회 - 제23회**  
(10월 17일 경남중 11:40)  
제23회 몰수패

**제20회 - 제24회**  
(10월 17일 경남고 10:00)  
제20회 몰수패

**제29회 - 제34회**  
(10월 11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9회	5	4	10	4	0	0	0			23
제34회	1	0	0	2	2	0	0			5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9회	35	21	21	21	5		4	7	8	2
제34회	26	5	9	5	2			5	3	

**▲제29회**  
▷투수 = 장현경 정상국  
▷포수 = 추연철  
▷2루타 = 장현경 이충원 이범익 정상국 김세원

**▲제34회**  
▷투수 = 김태하  
▷포수 = 권대식 박재찬  
▷2루타 = 허윤모 박재찬

**제19회 - 제27회**  
(10월 16일 경남고 13: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19회	4	0	0	4	0	1	1			10
제27회	1	1	3	1	1	3	1			11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19회	24	6	4	6	4		5	3	2	4
제27회	34	11	13	11	13		3	4	6	

**▲제19회**  
▷투수 = 정순임 정학영  
▷포수 = 김중기  
▷2루타 = 김광웅

**▲제27회**  
▷투수 = 조영일  
▷포수 = 황귀양  
▷2루타 = 이성득 허종환 조영일

<6면에 이어>

하구 하단2동 1217 SK VIEW 112동202호. 051-203-4044  
윤명길=(주)동남 대표이사. 11월21일 장녀 재영양 결혼  
서효조=(주)대흥전기 이사. 11월21일 장남 재홍군 결혼  
박용일=(주)온파스포토랩 대표이사. 12월8일 차남 성현군 결혼. 배나무골에서 결혼터  
서정도=삼천포중학교 교장. 055-832-7391. (자택이사)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0-1.055-855-0440  
박기태=(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신빌리지 102동214호  
채경일=(자택이사)경북 구미시 도량2동 77 파크맨션 108동202호. 054-451-4204

박기용=황금숯불촌 대표. (자택이사)부산 부산진구 가야3동 58-10. 051-898-1725  
지수신=신진컨설팅 대표. 051-740-5471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롯데 1차아파트 111-1301 051-525-1519

**제 20회**  
정해녕=중근당약국 대표. 11월 28일 롯데호텔에서 딸 나영양 결혼. 051-523-8356  
박용덕=대저토건 회장. 12월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들 준영군 결혼. 055-336-0680  
설창환=구포치과의원장. 12월11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딸 재연양 결혼. 051-332-6309  
김태선=현대병원 원장. 12월18



일 코모도호텔에서 아들 휘군 군 결혼. 051-555-8782  
김용철=키노당구장 대표. 북구 덕천동 이전개업. 051-336-3949

**제 24회**  
김성득=울산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과 교수. 052-259-2257. (자택)울산 남구 무거동 828-3 청구하이츠 1209호. 051-249-5042  
김현태=현대중공업 엔지니어링부 영업총괄상무. 052-230-7020. (자택)울산 동구 서부동 257 미포아파트 6-1. 052-252-4951

서정득=(이전개업)신세계약국 대표. 052-289-3470. (자택이사)울산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1차 아파트 107동504호. 052-282-3317  
우현상=현대중공업 프랜차이즈부 설비공사업부 부장. 052-230-5831  
윤지현=(자택이사)울산 북구 염포동 326 염포성원상매빌 113동201호. 052-288-5839  
이석우=울산동기회 총무. 현대중공업 플랜트사업부 W.SENO PM 부장. 052-230-6821. (자택)울산 동구 전하동 301-24 현대홈타운아파트 106동2101호. 052-233-0392  
이우영=주영목재 대표. 052-266-9117. (자택)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쌍용하나빌리지 107동1203호. 052-277-0059  
차문공=(주)해광 부사장. 052-

272-6027(자택이사)울산 남구 신정3동 178-8 영풍세르빌 307호. 052-261-1081  
하성기=S-OIL(주) 부사장. 울산 공장장. 052-231-2701. (자택)울산 남구 신정2동 1614-14 S-OIL 사택 C2-201. 052-279-9607  
윤두일=진하춘천옥 맥반석 불가마. 052-239-5522  
김중섭=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특수선영업부장. 052-230-0101  
남진현=(주)금화상사 대표이사. 052-297-7202. (자택)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108-95 경보아파트 301동1706호. 055-387-3743  
김기준=케미칼 네트워크(주) 대표이사. 052-260-8918. (자택)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753-14. 052-260-8917

미/국/시/카/고/동/문/들/의/송/년/메/시/지

정행권 본부동창회 회장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국내와 세계 도처에서 개척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용마들의 우정과 봉사정신을 모으는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를 이끄시며 진력하시는 회장님께, 미국중서부동창회의 회원 일동은 멀리서나마 항상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중서부동창회는, 오는 12월 12일(일) 오후 6시에 올해 송년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곳 동문들을 대표하여, 지난 4월 25일에 있는 이곳 동창회 총회를 위하여 본부동창회에서 제작, 기증하여주신 '미국중서부동창회기'에 대하여 본부동창회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동창회기는, 지난 총회를 참으로 뜻깊게 한 감동적인 활력소였습니다. 이 총회는 동창회기 입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 중 막내 회원인 김우갑(26회) 동문이 '경남중고등학교 미국중서부동창회기'를 들고 입장, 김영부 선배님(3회·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시 시카고 방문 중에 참석)께 공손히 드렸고, 이를 전임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김진환(8회) 이근보(12회) 유정호 동문(16회)을 거쳐 본인이 받아 회의장 정면 중앙에 게양하였습니다. 이날의 우리 동문 선배들은 감격의 한 마음으로 울렁이게 한 그 순간은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가족의 병환 중에도 참석한 이근보 전임 회장이 전달받은 동창회기를 좌중을 향하여 힘차게 흔드는 순간, 참석한 25명

“동창회 깃발 아래 굳게 뭉쳤습니다”

의 동문과 가족 일동은 누가 먼저라 할 것없이 일제히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환호하던 동문들의 표정은, 아마도 모교 야구단의 경기파리·진 소리와 더불어 '황금사자기'를 쟁취하던 서울운동장의 그 순간이었으며, 이는 또 만리 지역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가슴 깊이 간직해 온 우리 용마들의 긍지를 표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마들은 이날 동창회기를 앞세운 채 가족들이 병환 중인 새 동문 가정에 보내는 패유를 소망하는 편지를 한마음으로 썼습니다.

정담들을 도란도란 나눈 만찬 후에는, 전용찬(12회) 전임 회장이 자신의 전문분야로서 동문 가정 모두에 도움이 될 '생남방 지구 관리 지침' 자료를 나누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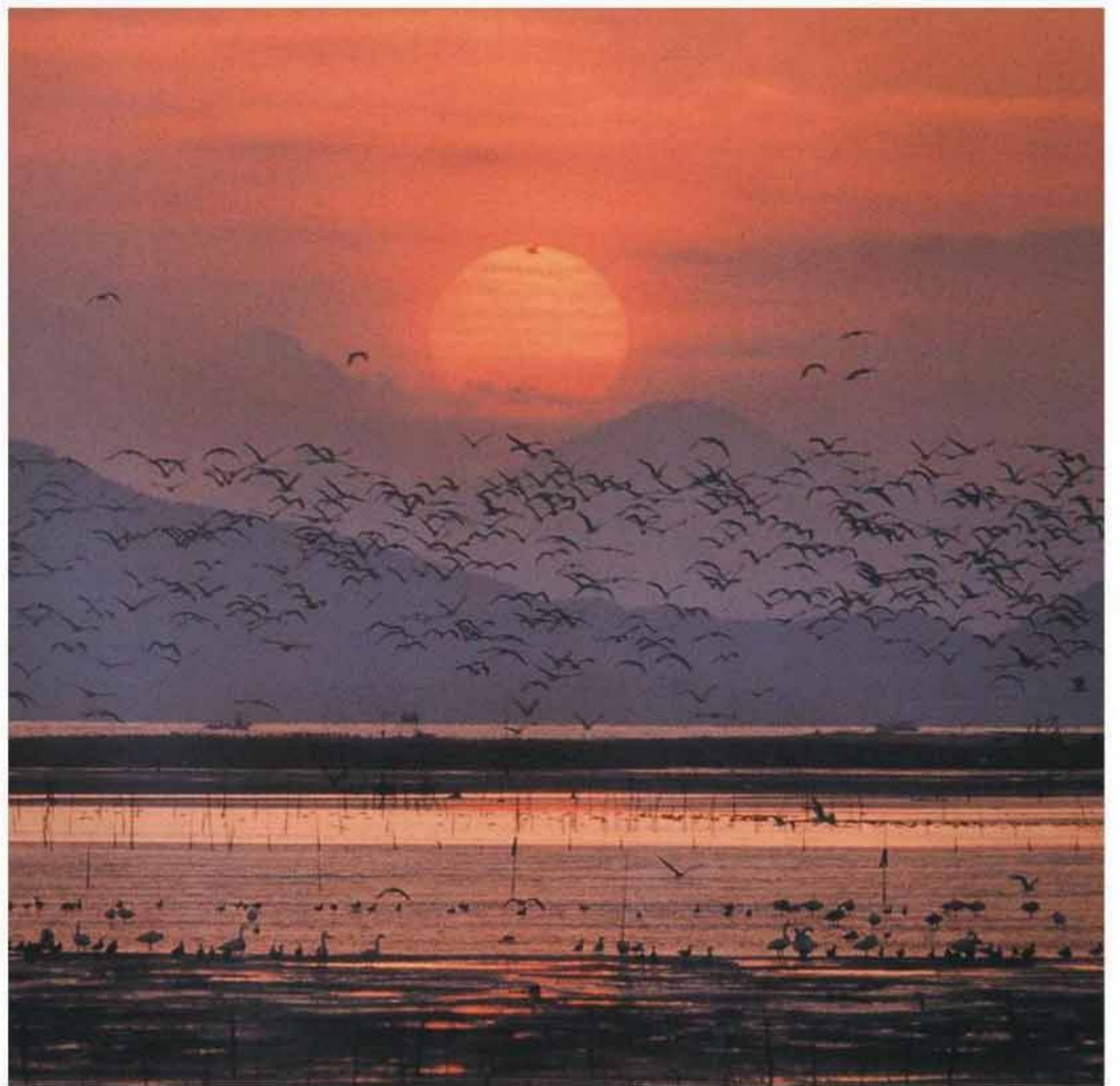
이어 건축가인 김진환(8회) 전임 회장이 한 시간 동안 전공가의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시카고 건축사'를 발표, 미국의 심장부인 5대호 중 가장 큰 미시간호변에 '현대건축의 성지'로 발전된 시카고시의 역사(인디안 원주민과 캐나다 선교사들 간의 교역을 시발로 하여, 미국의 곡물 무역 경제의 중심, 현대 산업 도시로 변천해 온 170여년의 역사에 깃든 건축양식의 세 가지 변천과정-실용·자연과의 조화·현대 첨단 양식)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 미국 건축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동문들의 안목을 넓혀주었습니다.

이날 동문들은 동창회기를 보내면서 동창회 활동을 격려하신 회장님의 서한에 감사드리고, 모임의 발전을 위한 본부동창회의 장학기금(이미 1,000달러 기탁)에 적으나마 정성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중서부동창회를 이끌 차기회장으로는 김무정(16회)동문이 선출되었습니다.

모교와 우리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본부 회장단과 국내의 선배 용마가족 여러분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크게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장님과 시카고를 방문하시는 동문들께서는 언제라도, 미국



격변의 갑신년 역사의 뒤안길로

소원과 김등이 교차했던 갑신년 한 해가 나라를 점고 있다.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고, 사라짐은 다시 태어남의 출발이다. 내일을 위해 아쉬움을 달래며 마음의 상처에 불을 당기자(사진은 낙동강 하구의 낙조와 철새들의 군무).

“동창회기 전라도에서도 ‘희망의 깃발’로 휘날려요” 전남동부지역동창회 공식 출범

초대 회장 박정근(21회) 선임



추진하는 '희망의 깃발'로 거듭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전남 여수시 수호동 요트경기장 앞 산호물횃집에서 열린 여수지역동창회 주관 전남 동부지역 용마가족 송년회에는 26명이 참석, 백연균 여수회고문(11회·삼정사 대표이사)의 제안에 따라 '경남중고전남동부지역동창회'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창립총회는 회칙을 승인한 후 초대 회장에 박정근(21회·동부계전 대표이사·사진), 부회장에 이충희(22회·동양제철화학 상무이사), 김병화 동문(35회·강사)을 총무로 각각 선임했다. 이날 공식 발표된 역대 동문은 제

11회에서 30회까지 모두 31명이다. 이날 경전회(慶全會-경남중고전남동부지역동창회 약칭)를 출범시킨 동문들은 한결같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 역내 용마가족 유대강화, 본부동창회와의 친선교류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전회의 모체가 되는 여수지역동창회는 지난 1982년경 창립, 여수문화방송(주) 사장으로 취임한 변현규 동문(7회)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한 이래 백연균·김재곤(이상 11회) 백승균 동문(12회) 등이 회장을 맡아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다.

이날 공식 발표된 역대 동문은 제

이날 공식 발표된 역대 동문은 제

제 29회동기회 임원 명단

회장 김대욱 (주)태화마린 대표이사

박장철 우물집 대표

부회장 박성철 창원지방방법원 부장판사 김영훈 초하한의원 원장 김대영 김대영치과의원 원장 박상길 박내과의원 원장 김민호 탐서울치과의원 원장 조성진 경성대학교 교수

감사 김부근 농협 부산대학교지점 지점장

상임이사 이승호 정대현 황유명 오경호 윤종경 김영화 이성렬 정길 이경호 김재현 이석조 한휘철 정유성 박기찬 오세웅 권두진

이사 권오영 강성일 김용채 김재우 김민호 김기영 김광만 김연래 김한일 김세원 김부겸 김수환 김철오 김태호 박철환 박영기 박영환 박광우 박병률 박정환 박동일 방인찬 배정엽 배현호 이해종 이정운 이종희 이상용 이용남 이문열 이성우 이상진 류광현 류광열 오일준 송경문 서치홍 서석철 심원섭 임광열 문덕환 정진환 전장화 정성훈 장휘열

전진호 좌경보 조진수 정문상 장만 제영모 정원국 최정만 최원락 최승열 최문성 표광민 현계성 황맹균 허경도 윤문수

총무 이충원 전영상(부) 현응렬(부)

동기회 사무실 051-465-0029